

후기 하이데거 철학의 동물론:

아감벤, 데리다 비판의 맹점*

김동규**

주제분류 현대유럽철학, 존재론, 생명윤리

주요어 동물성, 인간성, 인간중심주의, 사이, 생물학적 연속주의, 형이상학적 분리주의, 하이데거, 데리다, 아감벤

요약문

현대 동물담론에서 하이데거는 비판적 준거점이다. 담론의 출발을 하이데거에게서 시작해서 그를 비판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이데거 철학이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하이데거의 동물론이 서양 전통 철학의 동물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킨 판본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하이데거가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서양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처럼 그의 동물론이 (끝내 청산하지 못한) 인간중심주의의 잔재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후자는 무적의 아킬레우스를 나약한 파리스가 무너뜨리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는 데에다, 하이데거 철학과의 채무 관계를 단번에 청산(배움의 빛을 비판으로 되갚음)할 수 있는 기회까지 후배 철학자들에게 부여한다. 문제는 이들의 하이데거 독서가 과연 꼼꼼하게 진행되었는지에 있다. 만일 부실한 이해가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 동물 담론을 이끌고 있는 철학자들이 하이데거 독서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그들의 하이데거 해석이 전적으로 오류투성이도 아니며, 그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59982)

** 연세대학교

들의 비판이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하이데거 동물론에서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는 측면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뿐더러, 동물성과 인간성의 관계에서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현재 진행되는 동물 담론을 간단히 스케치하고, (2) 전·후기 하이데거 동물론의 전모를 밝힌 다음, 마지막으로 (3)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요컨대 동물/인간의 관계 문제에서 하이데거 동물론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1. 세 가지 위험

현재 동물에 관한 담론이 뜨겁게 과열되고 있다. 소위 바이오테크놀로지 시대¹⁾로 접어들면서 생명윤리나 생태주의 관련 논쟁이 불붙고 있으며, 그와 연계해 전통 철학을 비판하는 지적 흐름(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까지 동물 담론에 합세함으로써 담론의 음량이 한층 더 증폭되었다. 게다가 인간중심주의²⁾를 비판하는 탈휴머니즘(posthumanism)까지 현행 담론의 헤게모니를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백가쟁명하고 있는 입장들의 눈에 띄는 공통점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은 수준에서 보려한다는 점이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은 동물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인간중심주의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인간만의 변별성이란 한갓 아집어린 편견 내지 오만일 뿐이다. 이런 최신의 지적 흐름을 접하면서 옛 철학자 파스칼의 문구가 새삼스런 의미로 다가온다.

인간에게 그의 위대성을 보여 주지 않은 채 그가 얼마나 짐승들과

-
- 1) 2000년대 초반 인간유전체사업(Human Genome Project)이 완료되면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의 시대가 열렸다. 크레이그 벤터를 비롯한 합성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읽기를 배운 아이가 글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명의 언어(유전자 정보체계)를 완벽히 해독한 후, 원하는 대로 새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2)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서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라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 관습적인 의미 층을 가진다. (1) 존재적 차원: 자연은 인간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자 인간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2) 인식적 차원: 인간 인식과 무관한 자연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 (3) 윤리적 차원: 자연은 윤리적으로 단지 부차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Dario Martinelli, “Anthropocentrism as a social phenomenon: semiotic and ethical implications, in: *Social Semiotics*, vol. 18, no. 1, March, 2008. 79-99쪽. 본 논문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하이데거나 아감벤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 심화된 의미로 인간중심주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똑같은 존재인지를 너무 많이 보여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의 비천함을 보여 주지 않은 채 그에게 그의 위대성을 너무 많이 보여 주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 이 두 가지를 그가 모르도록 내 버려 두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그에게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³⁾

위에 인용된 파스칼의 말은 동물과 인간의 비교 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성과 대비되는 비천함을 동물성의 등가 개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동물들에게서 자연스러운 것을 인간에게 있어서는 비참이라고 부르고 있다.”⁴⁾ 위 인용문 내용이 난해하지는 않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위험의 정도	태도의 내용	태도의 진실성
첫 번째	안전(유익)	인간의 위대함과 비천함을 모두 보이기	정직한 자기인식
두 번째	최소 위험	위대함은 보여주지 않고 비천함만 보이기	위악적 자기인식
세 번째	중간 위험	위대함만 보이고 비천함은 보여주지 않기	위선적 자기인식
네 번째	최대 위험	위대함도 비천함도 모두 보여주지 않기	무지와 무관심

파스칼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동물 담론은 과거 인간중심주의에 빠져 있던 세 번째 태도를 피하기 위해서 그보다 덜 위험한 두 번째 태도, 즉 인간의 위대성을 배제하고 비천함만을 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고위험을 피하고자 그보다 덜한 위험을 선택하는 것은 한갓 차선의 선택일 뿐이다. 현대의 동물 담론은 결코 최선의 길이 아니다. 필

3) 파스칼, 『팡세』, 김형길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78쪽.

4) 파스칼, 같은 책, 75쪽. 브롱슈빅 판본을 쓰고 있는 영역판 『팡세』와 비교해 보면 (한국어 판본은 셀리에 판본과 라퐁마 판본까지 참조하고 있다), 짐승(brute), 동물(animal), 비천함(wretchedness), 비참(vileness)으로 되어 있으며, 짐승과 동물, 비천함과 비참이 큰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가 보기에 최선의 길은 존재하며, 비록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

현대의 동물담론에서 하이데거는 동네북이 된 듯한 인상을 준다. 모든 담론의 출발을 하이데거에게서 시작해서 그를 비판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이데거가 이런 논의의 발판이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하이데거의 동물론이 서양 전통 철학의 동물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시킨 판본이라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이데거가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서양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론만큼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처럼) 청산하지 못한 전통의 잔재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무적의 아킬레우스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는 데에다, 하이데거 철학과의 채무 관계를 단번에 청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대부분의 현대 유럽철학자들은 하이데거 철학에 빚지고 있는데, 하이데거적 아이디어로 그의 한계를 돌파한다는 점에서 빚을 청산한다는 뜻이다. 배움의 빚을 철저한 비판으로 되갚는, 소위 부친살해라는 서양의 지적 전통이 여기에서도 반복된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하이데거 동물론은 거의 모든 현대적 동물담론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하이데거 독서가 꼼꼼하게 진행되었는지에 있다. 만일 부실한 이해와 일면적인 분석이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온전한 이해는 어떤 모습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동물 담론을 이끌고 있는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데리다와 아감벤은 하이데거 동물론을 편파적으로 읽고 있다. 파스칼식으로 말한다면, 편파성의 주요 원인은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위험을 선택했던 데 있다. 그들의 하이데거 해석이 전적으로 오류투성이라든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하이데거 동물론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제된 측면을 발굴하는 지적 작업과 함께,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 논

문의 목적은 첫째 현재 진행되는 동물 담론을 간단히 스케치하고, 둘째 하이데거 동물론의 전모를 밝힌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현행 동물 담론의 지형도

이 글은 생명윤리학자, 생태주의자, 혹은 동물행동학자(ethologist), 동물애호가(동물권리옹호론자), 채식주의자의 지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논변과 당위적 주장, 그리고 감정적 호소 같은 것들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차라리 동물성에 관한 문제가 지금까지 숨겨져 온 철학의 근본문제라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동물성이라는 문제는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근본 물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현대의 세 철학자, 하이데거, 아감벤, 데리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특별히 데리다는 이 문제가 얼마만큼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가장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물성에 관한 질문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 인간의 본질, 윤리학, 정치학, 법, 인간권리에 관한 개념과 “모든 거대담론들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한계”⁵⁾이다. 그리고 데리다에게 “생명과 살아있는 동물의 문제는 내게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였다.”⁶⁾ 아직까지 우리는 데리다가 왜 이런 단언을 했는지 충분

5) Jacques Derrida and Elisabeth Roudinesco, *For what tomorrow : a dialogue*, trans. by Jeff Fort,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63쪽.

6) Jacques Derrida,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ed. by Marie-Louise Mallet ; trans. by David Wills,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2008. [*L'animal que donc je suis*, édition établie par Marie-Louise Mallet, Paris : Galilée, 2006], 34쪽. 참고로 프랑스어에서 *suis*는 동사 *être*와 *suivre*(따르다, follow)의 1인칭 변화형이다. 두 낱말의 의미를 모두 살리려고 했던 데리다의 취지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인 ‘나’ 이전의 낱설고 알 수 없는 ‘나’이며,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존

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생태주의자와 동물권리 주창자들도 자신들이 얼마만큼 난해한 철학적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데리다를 비롯한 몇몇 현대 철학자들에게 동물성에 관한 문제는 단지 약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성’ 그리고 (자연과 구별되는) ‘문명/윤리’를 규정하는데 불가피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철학적 근본문제로 설정된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 문제를 둘러싼 현행 지적 논쟁의 지형도를 간략히 그려보자면, 우선 (1)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담론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고, 주변부에 철학적 담론이 포진해 있다.(근대 이후 과학이 지성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유럽 철학계의 경우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데리다, 아감벤, 뤼페리 등이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3) 생명윤리(특히 영미 철학계)의 측면에서 동물의 윤리적 고려 가능성을 처음 열었던 벤덤, 밀, 시즈워의 전통에 서 있는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칸트적 영감으로 생명윤리에 접근한 톰 리건(Tom Regan)과 동물권이 인권과 불가피하게 연루됨을 보여준 파올라 카발리에리(Paola Cavalieri)를⁷⁾ 포함하여] 대표인물이다.

재’이다.

- 7) 칼라르코는 이 세 철학자(싱어, 리건, 카발리에리)를 인간과 동물의 윤리적 동등성을 강조하는 “동일성의 윤리학(ethics of identity)”에 포함시킨다. 그의 다음 책을 참조. Matthew Calarco, *Thinking Through Animals: Identity, Difference, Indistin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Kindle Edition)(19쪽). 리건에 대해서만 첨언하자면, 영상을 통해 중국이나 한국의 식당에서 고양이나 개를 먹는 잡아-요리해-먹는 모습을 처음 보면서 리건은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Stop it! What are you doing! Stop it!” 그는 이런 즉각적인 외침이 칸트적 양심의 목소리라고 여긴다. (하지만 과연 그런 외침을 무조건적 정언명법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음의 책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참조. Tom Regan, *Empty Cages: Facing the Challenge of Animal Right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3(Kindle Edition). 리건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Animal Rights, Human Wrongs”, in: *Environmental Philosophy: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 Ecology*, Michael E. Zimmerman(ed.),

철학의 외부에서는 경험적 발견과 최첨단의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수렴되는 것에 반해서, 유럽 철학계에서는 이미 과거 인물이 되어 버린 하이데거가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국내에서는 (1), (3)은 어느 정도 소개도 되고 논의도 있었지만,⁸⁾ 본 논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2)에 관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간략하게 전통철학의 동물론을 스케치하면,⁹⁾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는 이성, 속고 능력(bouleusis), 사유, 언어, 공동체성(폴리스적 존재) 등의 유무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데, 특히 그는 ‘이성적 동물(zoon logon echon)’이라는 인간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제공했다. 그 철학자의 생각은 성서의 권위(‘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창세기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로서 동물/인간의 차별을 정당화한 기독교 교의와 결합하여 거대한 전통을 확립한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의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바탕으로 동물을 ‘움직이는 기계’(moving machines)로 간주했다. 반면 벤담, 로크, 스피노자, 루소 등은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봄으로써 윤리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법은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 이런 견해는 헤겔에 와서 정점에 이른다. 그는 개념적 언어가 동물성의 죽음을 통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전통적인 구분법을 굳건하게 고수한다. 반면 니체는 이런 전통적 구분법을 처음 의심했던 철학자로서 하이데거 동물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Prentice Hall, 2001. 41-55쪽.

- 8) (1)의 견해를 널리 알린 사람으로는 최재천, 장대익 등을 꼽을 수 있고, (3)의 견해를 알린 사람으로는 김성한, 맹주만 등을 꼽을 수 있다.
- 9) 서양 전통 철학의 동물론을 잘 정리한 글인 리피트의 다음 논문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Akira Mizuta Lippit, "Afterthoughts on the Animal World", *ML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786-830쪽.

동물성과 인간성의 관계라는 해묵은 문제가 현대에 와서 크게 조명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결정적인 계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1) 다윈주의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꼽을 수 있고, 다음으로 (2) 과학기술/생명공학적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문제의 대두를, 마지막으로 (3) 인간중심적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또는 비판적·철학적 반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이 문제를 논쟁의 소용돌이로 이끈 장본인은 철학자가 아닌 생물학자 다윈이다. 1859년 출간된 『종의 기원』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사다리(*scala naturae*)’와 유대-기독교의 ‘창조론’을 믿고 있던 서구인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동물과 인간의 질적 차이보다는 ‘점진적 연속성’을 주창하는 혁명적 이론으로 비춰졌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 정설이 되면서부터, 점차 동물과 인간의 차이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잘 알려진 대로 다윈에 따르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본질적 차이이기보다는 정도의 차이”¹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은 현대 분자 생물학자들의 실증적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증된 듯 보인다. 쉽게 말하자면, 원숭이의 유전자와 인간의 것이 거의 일치하며, 핵심 유전자 기능의 차원에서 보자면 미생물과도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말소된 듯 보인다.

하지만 동물성과 인간성의 차이를 ‘말소’하고, 본질적 차이를 정도의 차이로 ‘대체’한다고 해서 인간중심적 시각을 탈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생물학적 담론에 반대하는 쪽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중요하며 그 차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문화, 윤리, 예술 등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10) C. Darwin, *The Descent of Man*, London, 1871. *Oakshot Complete Works of Charles Darwin* (Illustrated, Inline Footnotes) (Classics Book 10) (Kindle Location 157292).

럼 로고스(이성 혹은 언어)의 소유 유무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 보수적인 견해는 대체적으로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슬한 경험적 반박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성에 대한 도구적인 해석이 학계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차이가 정도의 차이든 본질적 차이이든 간에, 이 모든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된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인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정의인 ‘이성적 동물’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본질적 차이를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윈주의자도 결코 동물과 인간이 똑같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들도 양자의 차이를 빠트리지 않고 말한다. 어느 쪽을 강조하든, 두 입장 모두 동물성이라는 바탕·토대 위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이해의 틀’에 갇혀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 그 무엇을 강조하든, 이성적-동물이라는 구조적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동일한 지평에서 지루하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계의 현주소다.

이 점에 대해 처음 진지하게 철학적인 반성을 수행했던 사람이 하이데거다. (데리다와 아감벤을 포함하여)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대개의 철학자들은 하이데거의 이런 위상을 놓치고 있다. 하이데거적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철학적 화두는 연속주의와 분리주의¹¹⁾가 모두 동일한 인간관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전과는 다른 인간이해를 개진하는 것이다. 물론 그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하이데거 철학을 비판할 때, 우리는 항상 그의 이런 철학적 위상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이데거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이 내장하고 있는 인간중심

11) 이 표현은 로리의 책에서 따왔다. Leonard Lawlor, *This Is Not Sufficient: An Essay on Animality and Human Nature in Derrid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25쪽. 그에 따르면, 동물론은 오랜 역사를 가진 형이상학적 분리주의(metaphysical separationism)와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적 연속주의(biological continuism)로 양분될 수 있다.

적 경향을 철저히 비판한다. 이성적 동물이라는 규정 속에는 이성을 강조하느냐(불연속성) 동물을 강조하느냐(연속성)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인간중심적 세계를 암암리에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성의 차별적 우위를 강조하는 견해는 물론이거니와, 동물과의 연속선상에서 인간을 파악하는 견해조차 ‘지배·조작·통제 가능한 존재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에(예컨대 유전자 조작) 인간중심적 경향에서 벗어난 입장이 아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동물과 관련해서 ‘생명’에 관한 하나의 해석이 이미 전제된다.”(GA9, 323)¹²⁾— 도리어 그런 과학주의적 입장은 과학적 객관성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입장조차 인간중심적일 수 있다’는 자기반성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다.(과학적 맹신주의는 과학의 미덕인 ‘반증가능성’을, 혹은 이론구성 초기에 발생하는 ‘가설정립의 인위성’을 쉽게 망각한다) 이성적 동물이라는 이해의 틀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해소 불가능한 아포리아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는 사실 기지(既知)의 인간도 동물도 아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새롭게 둘을 밝히는 현-존재(Da-sein)일 따름이다. 하이데거의 이런 아이디어는 언뜻 수수께끼처럼 들린다. 앞으로 우리의 논의는 이것의 해명에도 일조할 것이다.

3. 전기 하이데거의 동물론

전집 29/30권으로 출간된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은 하이데거가 1929/30년 수업을 위해 준비한 강의록으로서, 수제자인 오이겐 핑크가 다른 어떤 강의록보다 먼저 출간해야한다고 간곡히 주장했던 글이다. 그런데 핑크를 비롯한 당시 많은 학생들이 열광했다던 이

12) 하이데거 전집저작 인용 출처표시는 본문에 (GA/전집권수/쪽수)로 통일하기로 한다. 인용된 전집 서지사항은 글 말미의 참고문헌 참조.

텍스트는 책 제목부터 난해하다. 제목에 따르자면, 이 글에는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이 담겨야 한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로 하이데거가 꼽은 것은 부제에 등장하는 세계, 유한성, 고독이다. 과연 이 개념들이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점점 더 예상치 못한 내용이 등장한다. 권태와 동물이 바로 그것이다.¹³⁾ 도대체 권태와 동물분석이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권태와 동물 양자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 물음들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¹⁴⁾ 여기에서는 하이데거 동물론의 재구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하이데거 동물론을 참조하면서 아감벤은 동물론의 형이상학적 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존재론-또는 제일철학-은 결코 무해한 아카데미 영

-
- 13) 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1) 철학에 대한 규정과 함께 형이상학이란 말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간단히 예비적인 고찰을 수행하고(1절-15절), 다음으로 (2) 권태를 분석하며(16절-38절), 마지막으로 (3) 세계 개념을 해명하기 위해 돌/동물/인간을 비교한다(39절-76절). 돌에 관한 논의는 미미해서, 동물(45절-63절)과 인간의 세계(64절-76절)에 대한 비교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적인 측면에서 권태분석과 동물/인간 비교 분석이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14)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이런 물음들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았다. 예컨대 문제의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한 이기상은 하이데거의 권태분석을 통해 “철학함의 태도”와 “현상학적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동물성 분석은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로만 평가한다(이기상, 「옴긴이의 말」,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2001, 615-616쪽). 두 테마의 연관성에 관한 지적은 없다. 이 점에서 박찬국도 마찬가지다. 그는 하이데거 분석이 갖는 의의와 과제를 말하는 논문의 4장에서 철학의 과제를 일깨우는 근본 기분으로서 잠시 권태를 언급하는 것에 그친다(박찬국:1998, 118-120쪽). 권태분석은 그저 동물분석을 위한 준비 작업이고, 동물분석은 (인간 현존재의) 세계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만 그 의미가 국한된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권태와 동물 분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또 양자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철학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하이데거는 왜 글의 대부분을 권태와 동물 분석에 할애했을까? (인간의) 세계를 말하기 위해서, 이토록 지루하리만큼 길게 동물 분석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관해서는 고쿠분 고이치로의 책 5, 6장과 아감벤의 『열림』, <§14. 깊은 권태>를 참조하면, 어느 정도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고쿠분 고이치로, 『인간은 언제부터 지루해했을까?』, 최재혁 옮김, 한권의책, 2014.

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의미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작동, 즉 그 속에서 인간발생(Anthropogenese), 곧 생명체의 인간됨이 일어나는 그런 근본적인 작동이다. 처음부터 형이상학에는 이런 전략이 각인되어 있다. 형이상학(metaphysica)은 인간적 역사를 향해 가는 가운데 동물적 자연의 극복을 완성하고 안내하는 바로 그 메타(meta)를 삽입하고 있다.”¹⁵⁾ 아감벤의 견해에 따르면, 야만적인 동물적 자연의 극복과 배제를 통해서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되며, 형이상학의 본질은 그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해 내는 개념 장치라는 점에 있다.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서양 철학사를 회고해 본다면,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베일에 가린 또 하나의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이 바로 ‘동물성’이라고 말이다.

하이데거는 세 가지 테제를 제시하고, 논의의 장을 선명하게 마련한다. 말하자면 [① 돌은 세계가 없다(weltlos) ② 동물은 세계가 부족하다(weltarm) ③ 인간은 세계를 형성한다(weltbildend)] 라는 테제를 실마리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여기에서 일단 관건이 되는 것은 세계의 ‘결여’라는 말의 의미다. 먼저 그는 결여라는 말을 단순한 결핍, 무능, 열등함으로 폄하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도리어 그것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동물 고유의 존재방식’을 뜻한다. 그리고 유기체(Organismus)의 기관(Organ: 고대 그리어로 organon은 ‘도구’를 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과 도구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동물 존재방식의 특성을 분별하고자 한다.

첫째, 도구가 사용자와는 분리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기관은 사용하는 자만을 위한 것이다. 둘째 도구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 반면, 기관은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관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기보다는

15) Giorgio Agamben, *Das Offene: Der Mensch und das Tier*, übersetzt von Davide Giuriato, Suhrkamp, 2003. 87쪽.

능력이 기관을 산출하고 소유한다. 셋째 도구와는 달리 기관은 타율적인 규칙이 아닌 자기 규칙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규제한다. 하지만 이때의 규칙은 충동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기체란 분화된 기관들을 통해서 통합된 자기 보존의 능력을 확보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런 자기보존 능력의 특징으로 하이데거는 ‘사로잡혀있음(Benommenheit)’을 꼽고 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내몰려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동물은 능력을 촉발하고 충동을 유발하는 자극들의 권역을 자기의 환경으로 가진다.

이 대목부터 본격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비교된다. 동물의 행동이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데 반해, 인간의 행동은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파악할 수 있는 관계망 속에서 태도를 취한다(Verhalten). 여기에서 “존재자가 그 자체로서 전체에서 개방되어 있음”(GA29/30, 410)을 세계로 규정하면서, 하이데거는 세계를 오직 인간에게만 귀속시킨다. 존재자를 존재자 ‘로서(als)’ 파악하지 못하는 동물은, 달리 말해서 자신의 사로잡혀 있음을 초월할 수 없는 동물은 세계로부터 소외된 존재자다. 이후 하이데거는 세계의 개방성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고대 그리스어로 언어와 이성을 뜻하던 말) 분석과 연결한다. 물론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로고스는 한갓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서의 도구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개방하는 세계 형성, 곧 진리를 밝히는 거기(Da)의 ‘자유’로서 다루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개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존재다.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이란 글 이외에도, 하이데거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목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구분기준	동물	인간 현존재
행동 방식	충동에 사로잡힘 benehmen	행동함 verhalten
죽음 방식	끝나버림 verenden	죽어감 sterben
이해 방식	주위환경의 자극에 반응	존재의 부름에 응답
유무(有無)	손(手)언어가 없다(세계의 결핍)	손언어가 있다(세계 형성)

유독 인간에게만 세계형성을 귀속시키고 있지만, 인간이 세계를 형성하는 주체라는 의미로 이 말을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박찬국의 글이 이 점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다. “인간이 주관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세계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본질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세계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 인간이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러한 형성과 함께 인간이 비로소 현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형성과 인간의 자기 창조는 함께 일어난다.”¹⁶⁾ 하이데거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인간으로서의 인간은 세계를 형성하면서 존재한다. 이 말은 마치 인간이 거리를 돌아다니듯이 세계를 형성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일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속의 현-존재가 세계를 형성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일컫고 있다.”(GA29/30, 414)

요컨대 세계형성은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 내 현존재의 몫이다. 그러나 현존재와 전혀 무관한 동물은 세계 형성에서 배제된다. 동물은 이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현존재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존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근대적 주체 형이상학, 곧 전통적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했던 하이데거는 현존재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에게만 배타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이후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16) 박찬국, 같은 곳, 115쪽.

4. 데리다와 아감벤의 하이데거 비판

데리다와 아감벤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된다. 복잡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공통된 비판의 요지는 의외로 간단하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위계를 갖고 인간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판했던 하이데거도 결국 ‘세계가 부족한 동물은 세계를 형성하는 현존재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다시 인간중심적 전통철학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인간중심적인 휴머니즘 비판을 하이데거가 철저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이데거가 처음으로 인간중심적 휴머니즘을 극복하고자 시도했던 점을 높게 평가한다. 인간중심적인 전통 철학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 사람은 같은 입장에서 있다. 그러나 데리다와 아감벤이 보기에, 하이데거가 문제제기는 제대로 했으나 그 역시도 전통철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수미일관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1929/30년 강의에서 행한 동물성 분석이다. 동물성과 인간성의 비교를 통해서 둘 사이의 차이를 확립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가 다시 인간중심적 전통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두 비판가의 공통된 견해다.

하이데거 비판을 공유하면서도 두 철학자는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데리다는 실제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먹기’ 현상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물을 고려해야 할 타자로서 인정(그러지 못했던 레비나스를 비판함으로써)하면서도, “잘 먹기(Eating Well)”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환유적 의미로서 타자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데리다의 견해에는 동물성과 인간성 구분의 이면에 궁극적으로 포식 현상(먹고 먹히기)이 놓여 있다는 통찰이 담겨있다. 반면 아감벤의 해법에 따르면, 동물성과 인간성의 구분을 생산하는 인류학적 기계 자체의 작동을 중단해야 한다. 인간 외부의 동물과 차이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인간 내

부의 동물성을 배제하는 그 기계가 외려 인간을 야수로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곡을 찌르는 통찰에 따르면, “동물의 완벽한 인간화는 인간의 완벽한 동물화와 일치한다.”¹⁷⁾

필자는 이와 같은 아감벤의 재기 넘치는 영감과 치밀한 텍스트 분석에 찬사를 보내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데리다가 ‘희생의 논리’를 극구 피하려하고 동물/인간의 전통적 구분을 해체하고자 하면서도 (환유적인 의미의) 먹는 행위의 불가피성 때문에 인류학적 기계의 전면적인 파괴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타 생명체를 먹어야만 하는 한, 아감벤의 주장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주장이다.¹⁸⁾ 그에 반해 데리다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한꺼번에 일소(一掃)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이를 거듭 살려내는 데(그러려면 기존의 차이를 해체하고 끊임없이 갱신해야 한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리다는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선배 지성인들을 동물성 담론의 문맥에서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백번 양보해도 하이데거는 동물에게서 현존재(Dasein)를 발견할 수 없으며,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인의 얼굴이라는 것도 결코 동물의 얼굴일 수 없다. 라캉이 동물에 관해 말했던 것, 즉 ‘동물은 거짓을 거짓으로 꾸밀 수 없다’라는 견해도 하이데거나 레비나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인간중심주의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인간성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담론은 “희생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뿌리

17) G. Agamben, *Ibid*, 86쪽.

18) 여기에 관해서는 필자와는 다른 견해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구자광은 데리다를 ‘개혁적’ 태도로, 아감벤을 ‘혁명적’ 태도라고 규정하면서, 도래할 공동체를 고려할 때 아감벤의 견해가 더 유의미하다고 본다. 물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아감벤은 먹기 현상 또는 희생 문제에 대해 좀 더 천착했어야 했다. 구자광, 「데리다와 아감벤의 인간/동물관계에 근거한 윤리학과 정치학에 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제51권 3호, 2009. 1~21쪽 참조.

깊은 휴머니즘”이다¹⁹⁾. 여기에서 언급되는 희생 구조란 근본적으로 “동물의 희생에 기초한 구조”를 뜻하며, “인간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희생 구조에 의하여 생산된 것”²⁰⁾이다. 전체적으로 데리다의 이런 비판은 적확하다. 하지만 데리다가 후기 하이데거 철학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지점은 용인하기 어렵다.

단적으로 데리다의 몰이해가 폭로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 부분은 하이데거 ‘사이’ 개념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다. “그 테제는 [동물성에 대한 테제] 하이데거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돌과 인간 사이의 동물) 그것의 **중간적인** 성격에 있어서 변증법적이라고는 말하지 못해도 강하게 목적론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남는다.”²¹⁾(원문강조). 이미 29/30년 강의에서도 하이데거는 분명하게 물질적인 자연과 인간 사이에 동물을 설정하는 견해와 거리를 두고 있다. 데리다가 그 사실을 뻔히 알고도 것처럼 평가하는 것이라면, 후기 하이데거 텍스트를 좀 더 꼼꼼히 보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의 사이 개념은 결코 변증법적인 매개도 아니고 목적론적인 개념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사이가 변증법적 개념으로, 즉 매개와 통일의 사이로 이해된다면, 모든 것을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생물학적 세계관이 주도적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미 하이데거는 29/30년에 데리다의 생각을 선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질적인 자연과 인간의 실존 그 중간에 자리를 잡아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생명을 보는 견해는, 인간을 비롯한 일체의 모든 것이 생명으로부터 해석된다고 보는 총체관을 위한 중심지, 즉 생물학적 세계관이 생겨나는 데에 종종 사용되곤 한다.”(GA29/30, 283) 하

19) Derrida, Jacques, *Points : interviews, 1974-1994*, edited by Elisabeth Weber ; translated by Peggy Kamuf & others,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179쪽.

20) 구자광, *같은 곳*, 5쪽.

21) 자크 데리다, 『정신에 대해서』, 박찬국 옮김, 동문선, 2005, 92쪽.

이데거는 이런 기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 때문에 데리다 비판의 화살은 기실 과녁에서 한참 벗어났다. 후기 하이데거는 자신의 사이 개념을 매개 개념과 철저히 구분한다. ‘매개’가 결국 획일화를 낳는다면, 하이데거의 ‘사이’는 차이의 산출을 통해 가까움을 얻는다.

하이데거 독해에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아감벤도 마찬가지다. 그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다음과 같은 영성한 추론을 도출해낸다. “이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a) 포스트-역사적인 인간은 탈은폐할 수 없는 자신의 동물성을 더 이상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테크놀로지를 통해 그것을 지배하고 떠맡으려 한다. b) 존재의 목자인 인간은 자기 고유의 은폐성, 자기 고유의 동물성을 전유한다. 여기서 동물성은 은닉되지 않고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서, 순수한 떠나감으로서 사유된다.”²²⁾ 첫 번째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눈이 먼 현대인들의 모습, 예컨대 유전자 지도를 밝혀내어 인간의 몸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라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후기’ 하이데거가 제시한 것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동물성을 긍정하기는 하지만, 동물성을 떠나간 것으로서 사유하게 될 것이다. 아감벤의 이런 해석은 후기 하이데거 동물론의 잠재성을 간과한 결과다. 오히려 하이데거에게 동물성은 그저 떠나간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낫설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래하고 압도하는 것이자, 그럼으로써 인간성을 그때마다 새롭게 재규정하는 것이다. 아감벤이 가정한 하이데거적 시나리오 오는 편협한 해석 프레임을 통해 굴절된 것일 뿐이다.

22) G. Agamben, *Ibid.*, 88쪽. 아감벤은 이 책 18장 제목을 ‘사이’로 정했지만, 하이데거가 아닌 벤야민의 아이디어에만 천착한다. 12-17장까지 하이데거 동물론을 다룬 논의 맥락으로 볼 때, 하이데거의 ‘사이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 후기 하이데거의 동물론이 최선의 길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하이데거를 통해 촉발된 동물성 문제를 데리다와 아감벤의 비판과 함께 간략히 살펴보았다. 일정 정도 데리다와 아감벤의 비판이 정당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정당한 비판의 빌미를 하이데거 자신이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들의 비판은 일면적이다. 비판의 화살이 전기 하이데거 견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성과 인간성 ‘사이’의 현상과 그것에 대한 하이데거적 통찰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쓴 비판의 화살은 과녁을 빗나갔다. 그렇다면 후기 하이데거가 말한 동물성은 어떤 것이며, 둘의 사이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 이 글의 마지막 과제다. 그것은 하이데거 사유의 편린을 새롭게 짜맞추고 그 해석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데리다와 아감벤의 비판에 대해 하이데거가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현실에서 우리는 자연 생명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지상에서의 거주는 자연 생명체들과의 어울림 속에서만 가능하지만, 그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런데 시 속에서 동물은 말을 할 수 있다. 후기 하이데거 철학에서 ‘시짓기와 사유하기’의 관계가 최대 관심사가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이데거는 시짓기와 거주하기를 사유하기와 연결시킨다. 인간이 이 땅에 거주하는데 요구되는 윤리는 동물과의 대화, 교감, 공감(더불어 사유하기를) 요청한다.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명윤리는 언제나 동물시학²³⁾을 바탕으로 재조정된다.

후기 하이데거는 릴케²⁴⁾와 니체를 언급하면서 동물성을 재론하고 있

23) 동물시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하십시오. 김동규, 「동물시학 연구: 하이데거 철학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49호, 2018. 1-27쪽.

24) 「무엇을 위해 시인은?」이외에도 하이데거는 릴케의 ‘열림’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다. 하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주목하는 글은 트라클 시를 분석하는 「시에서의 언어」이다. 여기에는 ‘푸른 야수’가 등장한다. 하이데거 해석에 따르면, 트라클의 시에 등장하는 푸른 야수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물이자 인간을 뜻한다.

…푸른 야수란 누구인가? 동물인가? 물론 그렇다. 그런데 정말 하나의 동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gedenken)해야만 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 푸른 야수는 동물이지만, 그것의 동물성은 아마도 동물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부르고 있는 저 주시하는 기억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성은 여전히 저 멀리 있으며 전혀 통찰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물의 동물성은 전혀 규정되지 않는 것 속에서 움직인다. 그 동물성은 아직은 자신의 본질 속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동물, 즉 사유하는 동물, 이성적 동물(animal rationale), 즉 인간은 니체의 말에 따르면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GA12, 41)

전기 하이데거 동물론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인간과 마주 선 동물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동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불법적인 피상적 비교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동물성도 인간성도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푸른 야수라고 불리는 것이다. 푸른 야수는 “죽을 자”²⁵⁾ “종래 인간의 본질

1942/43년 겨울 학기에 행한 파르메니데스 강의(GA54, 특히 226-230)와 1942년의 휠덜린 강의(GA53, 113)에서도 생물학주의와 니체 철학에 경도된 릴케와 하이데거 자신의 ‘열림’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25) 박찬국은 “죽음에 대해서 동물이 맺는 관계가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차후의 과제”(같은 곳, 125쪽)로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제는 후기 동물론을 참조하면서 재구성해야 한다. 미첼(Andrew J. Mitchell)은 이 과제를 처음 진지하게 떠안았던 철학자다. 그에 따르면, “가사성(Mortality)은 인간의 특권이 아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사성은 오로지 동물성의 해방, 동물에 대한, 동물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동물성에 대한 재고(再考)를 통해서만 가능하다.”(2011, 81쪽) 미첼의 연구가 후기 동물론 연구의 윤곽을 잘 그

형상을 떠나버린 이들”(GA12, 42)이다. 트라클의 시 속에서 푸른 야수들은 낯선 이방인을 기억하면서 그와 함께 방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방인이란 지상에서는 낯선 영혼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 결별하고 은둔한 사람(der Ab-geschiedene)이며, 때문에 광인(狂人)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이데거는 광기를 어원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방인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홀로 여행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방인은 타락한 푸른 야수들을 뒤로 남긴 채 다른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하이데거에게 우수(Schwermut, 혹은 Melancholie)에 젖은 이방인이란 결국 저녁의 나라, 서양(Abend-land)의 몰락의 ‘고통’을 감내하며 새로운 시원을 찾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하이데거에게 이런 이방인은 (이 텍스트에도 등장하는) 시인과 사유자다. 이들은 동물성과 인간성의 사이에서 들려오는 존재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새롭게 도래할 인간상이다.(반면 하이데거는 도래할 동물성의 모습의 작은 흔적만을 남겼을 뿐, 선명하게 그리지 못했다) 이 이방인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곳, 즉 동물성과 인간성의 확정되지 않은 ‘사이’를 모험하는 방랑자들이다. 언젠가 그들에 의해(엄밀히 말하자면 ‘사이’에서 존재의 증여에 응답함으로써) 동물성과 인간성은 확정될 것이다. ‘불타오르는 정신’을 가진 이방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나의 종족(Geschlecht)’을 불러올 것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동물성과 인간성의 사이가 드러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트라클 시에서 이방인을 부르고 유인하는 소리는 개똥지빠귀 새소리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사이의 심연에서 들리는 소리는 새소리처럼 들린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일까? 시인과 사유자가 방랑해야 할 그 ‘사이’는 어떤 곳일까?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어로 ‘존재론적 차이(ontologische Differenz)’를

려주고 있고, 게다가 ‘사이’ 개념도 정확히 적시했지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만 머물고 있다.

핍을 수 있다.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라는 존재론적 차이 개념은 한마디로 존재의 실체화(결국 존재자성으로 이해된 존재)를 막기 위한 개념이다. 그런 차이가 ‘현존재, 거기(Da), 진리, 존재사건, 관계’ 등의 의미를 갖는 ‘사이’ 개념으로 이해된다.²⁶⁾ 이후 그것은 ‘사이-나눔’(Unter-Schied: 차이)라는 개념을 통해 차이와 사이 개념의 근친성이 확인된다.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그때그때마다 차이를 낳는 통일적인 관계, 즉 모든 사이 항들을 구분하면서도 이어주는 ‘사이’의 존재사건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동물성과 인간성의 사이도 이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일까? 동물성과 인간성이 따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이의 사건’을 통해 추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동물성과 인간성의 차이가 유동적인 것이며, 사이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차이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 용어로 말하자면, ‘사이’는 예측불허의 사건이자 비밀스러운 존재의 선물이며, 존재역사가 보내는 알 수 없는 운명이다. 균열이 일어나는 그 사이는 심연의 깊이와 어둠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심연에 들어간 사람은 기존의 인간 기준으로 보면 동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멜랑콜리 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²⁷⁾ 그 심연 속에 들어가야만 창조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롭게 동물성/인간성의 경계선을 그을 수 있다. 기존의 시각에서 볼 때, 식별불능의 ‘사이’에 거주하는 이는 동물적이고 야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성과 사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지의 동물성은 인간성과 마찬가지로 사이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두텁고 심원한 ‘사이’의 어둠이 역

26) 하이데거의 ‘사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책을 참조하십시오. 김동규, 『하이데거의 사이-예술론: 예술과 철학 사이』, 그린비, 2009. Cioflec, Eveline, *Der Begriff des “Zwischen” bei Martin Heidegger: Eine Erörterung ausgehend von Sein und Zeit*, Alber Thesen, 2012.

27) 김동규, 『멜랑콜리아: 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 문학동네, 2014. 창조성과 관련해서는 1장을, 하이데거 철학과 관련해서는 5, 6장 참조.

사의 국면마다 새롭게 동물성과 인간성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그 어둠(동시에 밝음을 간직한 *Lichtung*)은 어떤 것일까?²⁸⁾

하이데거는 흐릿하게나마 미래의 인간상을 그렸다. 시인과 사유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동물상은 어떤 모습일까? 하이데거의 입을 통해서 이것에 관한 직접적인 말은 거의 들을 수 없다. 하지만 ‘심미적 사이’ 개념은 이 물음에 대한 암시적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심미적 지평에서 보자면, 미래의 동물성을 그려볼 수 있는 단초가 하이데거의 예술작품 분석에서 발견된다. 「예술작품의 근원」에 등장하는 대지(*Erde*)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²⁹⁾ 우리는 이 개념에서 미래의 동물성의 기본 열개를 대강이나마 그려볼 수 있다. 무엇보다 대지는 하이데거에게 “자신을 폐쇄하는 것”(GA5, 33)으로서 고대 그리스적 자연, 곧 퀴시스가 스스로를 숨기고 간직하며 보호하는 작용과 연관된다. 대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 둘 때에야 비로소 자신을 감추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진리를 드러내는 예술작품은 세계와 대지가 명-암(明-暗)의 콘트라스트를 형성하는 경계, ‘사이의 거기(Da)’이다. 그리고 동물성이란 사이에서 드러난 대지적 어둠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해석 방향을 지지해 주는 전거(典據)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하이데거의 니체 강의에는 차라투스트라의 동물 이야기가

28) 필자는 하이데거의 ‘사이’를 ‘심미적 힘’(die ästhetische Kraft)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칸트와 실러가 했던 것처럼,(물론 그들은 ‘사이’를 한갓 ‘매개’로 파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성과 인간성의 사이는 심미적 힘이 전개되는 시공간이다. 그 사이는 데리다나 아감벤의 생각처럼 정치와 윤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선 미학의 문제다. 여기에서 특히 멘케(Christoph Menke)의 미학 연구가 도움을 준다. 그에 따르면, 규정 불가능한 심미적 힘은 인간적 주체 이전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자 주체에 대항해서 주체를 교란시키는 어두운 힘이다. 그것은 “전(vor)-주체적이고, 반(gegen)-주체적인 힘”(2008, 58쪽)이다. 그리고 멘케는 미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동물성과 인간성의 심미적 ‘사이’일 것이다.

29) 간략하게나마 아감벤도 이런 해석을 시도했다. G. Agamben, *Ibid*, 83쪽.

등장한다. 하이데거의 해석에 따르면, 그 동물들(독수리와 뱀)은 “차라투스트라 자신의 본질 이미지(Bild)”인 일종의 상징(Sinnbild)이다. 니체는 그런 동물들이 차라투스트라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주석을 남긴다. “상징은 오직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조형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말한다. 시 짓는 힘, 즉 고차적으로 형성하는 힘(die dichtende, und d.h. höher bildende Kraft)이 사그라지자마자, 그 상징들은 말하기를 멈춘다(GA44, 51).”³⁰⁾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동물은 항상 침묵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침묵은 언어능력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지의 침묵’에 가깝다. 대지처럼 그것은 스스로를 숨기고 감춘다. 인간이 동물에게 무엇(이성적 자연법칙, 분류체계 등)을 덧씌워도, 끝내 그것은 잡히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오직 시적인 힘, 심미적 힘 속에서만 동물은 말하기 시작한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동물 소리도 인간의 소리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동물의 목소리에는 인간이 ‘대지 위에서 거주하는 법’이 담겨있다. 결국 ‘사이’의 심미적인 힘이 기존의 낡은 구분들을 무화(無化)시키고, 동물성과 인간성 그리고 둘의 관계방식을 창조적으로 재규정해 준다.

하이데거의 동물론에는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파스칼식 비참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고심(苦心)까지 담겨 있다. 생물학적 연속주의와 형이상학적 분리주의라는 스킨라와 카리브디스의 중도(中道)를 모색했던 하이데거는 명쾌하고 단순명료한 주장 대신, 단지 아슬아슬한 사유의 흐릿한 길만을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최악을 피하려고 성급하게 차악·차선을 선택하기보다는 끝까지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성인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중심주의는

30) 마르틴 하이데거, 『니체 I』, 박찬국 옮김, 길, 2010. 296쪽(번역 수정).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드높이는 길이 아니며, 오히려 (생명, 자연, 존재에 귀속된) 동물의 무언의 소리를 경청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 위대성의 증표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이데거 후기 동물론은 미약한 단초 정도에 그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파스칼 식 최선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

참고문헌

1. 하이데거 전집 약어

- GA4 *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 hrsg. Friedrich-Wilhelm von Herrmann. Frankfurt a.M.: Klostermann. 1981.
- GA5 *Holzwege.*, hrsg. Friedrich-Wilhelm von Herrmann. Frankfurt a.M.: Klostermann. 1977.
- GA9 *Wegmarken*. hrsg. Friedrich-Wilhelm von Herrmann. Frankfurt a.M.: Klostermann. 1976.
- GA11 *Identität und Differenz*. 6. Auflage. Pfullingen: Neske, 1978.
- GA12 *Unterwegs zur Sprache*. hrsg. Friedrich-Wilhelm von Herrmann. Frankfurt a.M.: Klostermann. 1985.
- GA29/30 *Die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Welt-Endlichkeit-Einsamkeit*. hrsg. Friedrich-Wilhelm von Herrmann. Frankfurt a.M.: Klostermann. 1983.
- GA44 *Nietzsches metaphysische Grundstellung im abendländischen Denken: Die ewige wiederkehr des Gleichen (S1937)*. hrsg. von Marion Heinz, Frankfurt a.M.: Vittorio Klostermann, 1986.
- GA53 *Hölderlins Hymne "Der Ister"*. hrsg. Walter Biemel. Frankfurt a.M.: Klostermann. 1984.
- GA54 *Parmenides*. hrsg. Manfred S. Frings. Frankfurt a.M.: Klostermann. 1982.

2. 이차 문헌

- 고쿠분 고이치로, 『인간은 언제부터 지루해했을까?』, 최재혁 옮김, 한권의책, 2014.
- 구자광, 「테리다와 아감벤의 인간/동물관계에 근거한 윤리학과 정치학에 대

- 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Vol.51, 2009.
- 김동규, 「동물시학 연구: 하이데거 철학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49호, 2018.
- 김동규, 『멜랑콜리아: 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 문학동네, 2014.
- 김동규, 『하이데거의 사이-예술론; 예술과 철학 사이』, 그린비, 2009.
-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이기상, 강태성 옮김, 까치, 2001
- 마르틴 하이데거, 『니체 I』, 박찬국 옮김, 길, 2010.
- 박찬국, 「동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고찰」,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10, 1998.
- 자크 데리다, 『정신에 대해서』, 박찬국 옮김, 동문선, 2005.
-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 Agamben, Giorgio, *Das Offene: Der Mensch und das Tier*, übersetzt von Davide Giuriato, Suhrkamp, 2003. [*The open : man and animal*,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L'aperto : l'uomo e l'animale*, 1. ed. Torino : Bollati Boringhieri 2002]
- Buchanan, Brett, *Onto-Ethologies: The Animal Environments of Uexküll, Heidegger, Merleau-Ponty and Deleuze*, SUNY Press, 2008.
- Calarco, Matthew, and Peter Atterton(ed.), *Animal philosophy : essential readings in continental thought*, London ; New York : Continuum 2004.
- Calarco, Matthew, *Zoographies : the question of the animal from Heidegger to Derrid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8.
- Calarco, Matthew, *Thinking Through Animals: Identity, Difference, Indistin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 Cioflec, Eveline, *Der Begriff des "Zwischen" bei Martin Heidegger: Eine*

- Erörterung ausgehend von Sein und Zeit*, Alber Thesen, 2012.
- Darwin, C., *The Descent of Man*, London, 1871.
- Derrida, Jacques and Elisabeth Roudinesco, *For what tomorrow : a dialogue*, trans. by Jeff Fort,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Derrida, Jacques, *Points : interviews, 1974-1994*, edited by Elisabeth Weber ; translated by Peggy Kamuf & others,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Derrida, Jacques,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ed. by Marie-Louise Mallet ; trans. by David Wills,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2008. [*L'animal que donc je suis*, édition établie par Marie-Louise Mallet, Paris : Galilée, 2006]
- Karlsson, Fredrik, "Anthropomorphism and Mechanomorphism",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vol.3, n.2, 2012.
- Lawlor, Leonard, *The Implication of Immanence: Toward a New Concept of Life*, Fordham University Press, 2006.
- Lawlor, Leonard, *This is not sufficient: an essay on animality and human nature in Derrid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Lippit, Akira Mizuta, "Afterthoughts on the Animal World", *ML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786-830)
- Llewelyn, John, *The Middle Voice of Ecological Conscience: A Chiasmatic Reading of Responsibility in the Neighborhood of Levinas, Heidegger and Other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Martinelli, Dario, "Anthropocentrism as a social phenomenon: semiotic and ethical implications, in: *Social Semiotics*, vol. 18, no. 1, March, 2008.
- Menke, Christoph, *Kraft: Ein Grundbegriff ästhetischer Anthropologie*,

- Suhrkamp, Frankfurt a. M., 2008.] [『미학적 힘: 미학적 인간학의 근본개념』, 김동규 옮김, 그린비, 2013]
- Mitchell, Andrew J., “Entering the World of Pain: Heidegger”, in: *Telos* 150, 2010.
- Mitchell, Andrew J., “Heidegger’s Later Thinking of Animality: The End of World Poverty”, in: *The Heidegger Circle Annual*, 1, 2011.
- Mitchell, Andrew J., *The Fourfold - Reading the Late Heidegger*,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5.
- Moe, Aaron M., *Zoopoetics: Animals and the Making of Poetry*, Lexington Books, 2014.
- Pascal, Blaise. *Pascal's Pensées* (Annotated), Kindle Edition. [『팡세』, 김형길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Regan, Tom, *Empty Cages: Facing the Challenge of Animal Right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3(Kindle Edition).
- Regan, Tom, “Animal Rights, Human Wrongs”, in: *Environmental Philosophy: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 Ecology*, Michael E. Zimmerman (ed.), Prentice Hall, 2001.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the definitive classic of the animal movement*, 1st Harper Perennial ed. New York : Harper Perennial 2009, (1975) [『동물해방』, 김성한 옮김, 연암서가, 2012]
- Uexküll, Jakob von, *Umwelt und Innenwelt der Tiere*, Verlag von Julius Springer, Berlin, 1909.(microform: Nabu Public Domain Reprints)
- Weil, Kari, *Thinking Animals: Why Animal Studies No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The Zoo-logy in view of late Heidegger' Philosophy : A blind spot of Agamben and Derrida's critique

Kim, Dong Gyu (Yonsei Univ.)

In modern animal discourses, Heidegger's philosophy is a main criterion. These discourses begin with Heidegger and end with criticizing him. It is for two main reasons that Heidegger's philosophy is treated like this. One is that Heidegger's philosophy is an updated edition of the most up-to-date versions of Western philosophy(including zoo-logy), and the other is that Heidegger's animal discourse has been seen as a remnant of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although he had criticized the Western anthropocentrism more intensively than anyone before. The latter gives the young philosophers an opportunity to settle the debts of Heidegger's philosophy once and for all (through criticizing his animal discourse by terms of his own logic). The question is whether their reading of Heidegger's texts was meticulously conducted. If it had a poor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y it happened. I believe that philosophers such as Derrida and Agamben, who have led nowadays the animal discourse, are biased against Heidegger, because they chose another kind of risk in order to avoid the greater danger. Of course, their interpretations are not entirely error-prone, and their criticism is persuasive within certain limits. However,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out aspects that were invisible through the points of view of them, and to try to find the best way in relation between animality and humanity.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1) to sketch present animal studies briefly,

(2) to reveal the entire Heidegger's animal discourse and finally, (3) to look for a best way in relation between animality and humanity. In short, it is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to examine whether Heidegger's zoo-logy can be the best way.

Key words: Animality, Humanity, Anthropocentrism, Between, Biological Continuism, Metaphysical Separationism, Heidegger, Derrida, Agamben

김동규 E-mail: sorgekim@hanmail.net

투 고 일	2018년 10월 03일
심 사 일	2018년 10월 31일
게재확정	2018년 11월 11일